

# 군 정 질 문 요 지 서

(     )내 답변대상

상 명	이 슈 연 의 원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대상자	평창군수 및 각실과장	소유자감	20분
1. 지역간의 균형발전 방향과 지역경제 희생 대책 (군수)			
2. 차기 광역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이 대 주민협약대로 추진 되지 않고 있는 이유			
기타 주민지원사업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환경복지과장)			
3. 금당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관하여(임업경영과장)			
① 3년반동안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사장된 이유			
② 향후 추진계획			
4. 상안미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관하여(건설과장)			
① 재정부로부터의 유상 양여계획은?			
②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③ 활용계획에 관한 용역의뢰는?			

5. 신리5리 농업용수 댐공사에 관하여(건설과장)

6. 평창공설묘지 부설공사 부분에 관하여(건설과장)

7. 간이상수도 보수대책(도시경제과장)

8. 대화초, 고랭지양파, 화훼 등 농산물의 고품질 및 명품화  
대책?(농업경영과장)

# 군 정 질 문 요 지 서

( )내 답변대상

성 명	직 위	소 속	정당
질문대상자	평창군수 및 각실과장	소속시간	20분
1. 폐비닐 수거대책 (농업경영과장)			
2. 지방세 징수 미납액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			
3. 부읍장과 부면장에 폐지에 따라 지휘감독의 제도적 보완책은? (자치행정과장)			
4. 효석문학관 건립과 관련(문화관광과장)			
- 준공기간내 준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문학관에 전시될 유품에 대하여			
- 묘지이장에 대하여			
5. 평창아리랑, 용평 둔전평 농악등 무형문화제 관리보전 대책은? (문화관광과장)			
6. 권혁승 군수 취임이후 가장 보람있었던 일과, 향후 꼭해야할 일은? (군수)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이수현 의원

## 2001 하반기 군정질문

이수현 의원입니다.

어느덧 3대 의회도, 그 임기를 다해가는, 아쉬움 속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군 의원으로서의 군정질문에 임함에 있어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다난한 마음이 7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게함은 물론 보람있었던 일보다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 같기에 아쉬움과 후회로 범벅이 되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난 2대 의회, 다시 말해서 초대 민선군수 시절에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뼈아픈 경험을 하였고 그에 따른 값진 교훈 또한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환희속에 새로이 출범한 3대 의회와 새로운 민선군수의 탄생은 5만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총체적으로는 지난 3년반동안 무난한 군정을 이끌어 왔다고 본 의원은 자평을 해봅니다.

그러나 의회든 집행부든 군민들의 바램에 충족할 만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떨쳐버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반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공복인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조직이 나태해졌으며, 요란스럽게 시끄러운 일도 없었지만, 특별히 잘한것도 없지 않느냐는 식의 주민들의 여론을 집행부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 또한 두 번의 의장선거의 후유증으로 각기 개성이 뚜렷한 다른 목소리로 군정에 임하여 주민들에게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 또한 반성해야 할 일이며, 가슴 아픈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군민을 위한 공복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자하는 충청어린 본 의원의 소견임을 밝히며 3대의회의 마지막 군정질

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우리 평창군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토대로한 지역경제의 회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의 총체적인 붕괴가 오늘날 우리 농촌의 어려움으로 직관됐고 이에 따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이 어려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이해는 가지만 우선은 작은힘이나마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의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부 낙후된 지역은 투자할래야 투자할꺼리가 없는 막막한 지경에 까지 이르러 어려움만 더욱 가중되는 오늘의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침체된 지역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아픔을 다소나마 어루만져 줄수 있는 집행부의 정책부재가

바로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때마다 항상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모든 대형프로젝트는 고속도로 인근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 경제적,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외된 지역을 위한 자구책이나 정책대안 제시가 생각만 가지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렇게 노력 해야할 집행부의 의지 역시 부족하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관광 평창을 모토로한 정책대안 제시가 소외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허심탄회하고 폭넓은 의견과 소외된 지역주민들



이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살 수 있는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한 긍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평창군의 광역매립장이 대화면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현재 원만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평창군의 실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고뇌에 찬 결단과 관용이 뒤따랐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누적된 행정불신으로 인하여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금 또 다시 지역주민을 상대로 새로운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 주민협약사항에 명시된 2000년도 12월말까지는 차기 매립장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는 약속을 1년

이 지나도록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진입로 해결을 위한 지도부의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렴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도저히 납득해가기가 어려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대 주민협약사항 준수여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매립장의 위치를 선정하고 차질없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 약속된 주민지원 사업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금당자연 휴양림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11월 4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고 재 요청하여 98년 7월 7일 '산림청고시 제 1998-12호'로 대화면 개수리 산36번지 42,44번지의

군유림 129만 5,266평방미터를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조건이 반드시 이행 될 수 있도록 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금당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라는 강원도지사로 부터의 공문이 본 군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후 3년반동안 이 문서 내용은 전혀 검토되지 못하고 집행부에 사장되어 왔습니다.

군도 4호선 인근에 위치한 본 사업대상지는 금당계곡과 대화면을 연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지역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는 인근 사유지의 매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업무추진능력의 결여와 사업추진 의지가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외된 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집행부가 전혀 관심이 없음을 반증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3년반 동안이나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반기 국정질문에 본 의원이 언급했던 상안미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했던 재경부로부터의 유상양여부분은 어떻게,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는 하셨는지,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은 어떻게 수렴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은 의뢰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리 5리 농업용수 땀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여러번

협의를 거쳐 농로포장과 도수로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건의됐습니다만 농진공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를 농진공이 무단 이설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평창군에서는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공설묘지 조성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창군의회는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공설묘지 조성사업장의 부실공사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으며, 본 회의장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에도 분명히 재 확인 하겠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을 일부 시정할 수는 있지만, 현행 제도상 한계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차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마무리를 지으려는 집행부의 의도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사항이며, 또한 어려운 군 재정속에서도 20여억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마무리를 지으려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재시공 조치하겠다는 답변과는 달리 본 의원의 확인으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축을 시공한 부분에는 뒷부분의 자갈채움을 하지 않아 석축전체가 심한 균열과 돌출현상이 발생하고, 석축이 황토색으로 채색이 되고 있음에도 우기에 토사가 흘러내린 자국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며,

처리계획서의 답변내용대로 붕괴위험구간은 전면 재시공 하겠다는 처리결과보고 역시 확인 결과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납골단 전면의 침목계단 부분도 라이닝작업을 실시하고, 줄눈 부분은 줄눈메꿈 처리를 하겠다고 한 사실과는 달리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지난 11월 9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재확인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의 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0월 11일 본사업장은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현장의 잘못된 부분이 문서상으로만 시정되면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지적사항은 전부 재시공 하였으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우리 평창군의 어두운 모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이러한 현실에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어서 간이 상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우리 평창군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군민들의 식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계획에도 6억 5천여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관리와 운영이 부실한 간이상수도는 매년 고질적인 중복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창군의 간이 상수도는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끝없는 보수보다는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평창군의 간이상수도 개선대책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랭지 양파와 화훼, 대화초등의 향후 지원계획과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의 뉴 라운드 무역관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의 발농사에 대한 장래는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바야흐로 농업도 이제 본격적인 국제경쟁사회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군의 전략적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자구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종별로 어떠한 지원계획과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평창군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찬 군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군 정 질 문

김 완 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원년도 이제서서히 저물어가고  
3대 의회도 모든일을 마무리 해야하는 시기라  
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군정질문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비닐 수거대책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닐사용은 김매기를 안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우리군에 주작목인 감자를 비롯 채소류, 고추  
등 모든 작목에 걸쳐 발면적 10,008Ha중 53%에  
해당하는 6,128헥타에 2,200톤의 비닐을 사용  
하는데 비해,

폐비닐 수거는 99년 702톤, 2000년 1,062톤  
금년 10월 30일 현재 914톤밖에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고  
심지어는 바람에 날려 전주나 나무에 걸쳐  
미관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소각의 경우 다이옥신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해로울 뿐 만 아니라,

산불발생이 우려되는등 폐비닐로 인한  
자연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현실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닐사용은 영농비 절감,  
폭우시 토사유출방지, 시비효과를 증대를  
통하여 앞으로 비닐사용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  
하다고 볼때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폐비닐 수거장려금  
제도로는 100%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98년 9월 25일로 구조조정에 의해  
각읍면에 부읍장과 부면장제가 폐지 되므로  
인하여

읍면장이 자리를 비울경우  
사실상 사무실 통제를 할사람이 없어 담당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일이 허다하여 민원처리  
지연과 행정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여건속에서 읍면장 부재시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증가 문제입니다.

우리군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99년에 37억 8천 7백만원으로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도 부과액 194억 4천 1백만원중

7월말현재 296억 4천 6백만원을 징수하여  
75.3% 징수율로서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79.7%에도 미달할 뿐  
만 아니라

인근 영월군 85.9%, 정선군 90%에 크게 떨어  
지고 있는데 그 원인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판단으로는 2000년 2월 10일자로  
읍면 재무업무 직원을 대폭 축소하고 군에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추진하므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납세자 소재파악이 지난하고

소액세금 징수율 저하와 변동사항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원발굴에도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출장시 납세자를 만나기 힘들어

원거리 반복출장으로 인해 출장비 과다지출  
및 시간낭비등이 발생되므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고장이 낳은 한국단편 문학의 대표적 작가  
가산 이효석 선생의 얼을 선양하고

메밀꽃 필무렵 소설의 작품무대를 정비하여  
문학도 들의 문학 학습장을 마련하고 대표적인  
문학탐방 코스를 마련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 총부지 66,919㎡에

사업비 34억 7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청소년 문학관, 생가복원, 충주집 복원 등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예정일자 2002년 8월 31일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가터 부지확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학관에 전시 보관되어야할 효석선생에 유품은 어떠한 것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업과 병행하여 꼭추진되어야할 일은

지금 경기도 파주군 공원묘지에 있는 효석선생의 묘지를 문화마을내로 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자랑스럽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상원사 동종,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상원가 목조문수동자좌상, 상원사중창  
권선문이 있으며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월인석보,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좌상 복장유품등의 많은 보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적으로 오대산 사고지가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이 있고,

중요 민속자료인 세조대왕의 백초화장 저고리  
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유형 문화재 6가지, 지방기념물 2곳,

문화재 자료가 4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형 문화제가 있는 반면  
무형문화재로는 전통활쏘기로 이용달님이  
지방무형 문화재 지정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지금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다행이 지난 9월 20일 화천에서 개최된  
제19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용평 둔전평 농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탄의 평창아리랑은 지금은 정선아리랑에  
가려있으나

둔전평 농악과 그 보존가치가 높은 민속으로  
더욱 발전시켜 계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보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혁승 군수께서 취임한지 40개월동안

풍부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군정을 이끌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것이고

앞으로 평창군이 꼭해야할 일이 있다면 어떤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본의원이 지금까지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이치욱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길지않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